

# 島嶼間的 協力에 관한 研究

— 濟州島를 中心으로 —

趙文富\*, 鄭鎮午\*\*

## 目 次

- I. 序 論
- II. 濟州島의 特色: 社會經濟的 文化的 背景
- III. 島嶼間 協力の 歷史
- IV. 島嶼間 協力の 實態
- V. 結論—島嶼間協力の 意味와 濟州島의 將來의 位置

## I. 序 論

濟州道는 흔히 極東의 하와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北方大陸文化와 南方海洋文化의 交叉點을 이루고 있다는 濟州島가 그동안 하와이처럼 極東에서나마 海洋文化와 大陸文化를 잇는 架橋的 役割을 해오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이제 到來의 可能性이 높은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앞두고, 人類文化의 發展을 위하여 어떠한 役割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번 發表의 要約이다.

濟州道의 問題를 생각하기에 앞서 太平洋時代의 可能性을 打診해 볼 필요가 있다. 最近에 東北 아시아의 太平洋沿岸國家들은 發展된 産業社會라고 할만큼 經濟的으로 成長했다.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美大陸과의 去來가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歷史의 時代가 展開되는 데 있어서는 經濟關係만이 아니라 文化의 同質性 내지는 共有關係가 必要하다. 太平洋沿岸의 아시아 諸國은 東洋文化의 體質위에 西洋文化를 受容하여 어느 程度까지는 西洋文化를 理解한다. 美國도 近來에

\* 法政大學 教授, \*\* 法政大學 副教授

와서 東洋文化를 眞心으로 理解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太平洋時代가 到來할 可能性이 높다고 볼 수 있다.

濟州道는 地政學上으로 臺北, 홍콩, 上海, 大連, 우라지보스톡, 東京과의 距離는 1,000km 内外이다. 産業經濟上의 立地條件은 亞熱帶에 가까운 溫帶에 屬하여 植物과 海洋資源이 豊富하고, 自然景觀이 秀麗하며, 神話와 傳說이 많아 異色的 神祕의 섬으로 觀光開發의 適地이다.

歷史와 文化面에서 韓半島에 比해 南方 海洋文化와의 接觸이 빨랐다. 그것은 先史時代나 歷史時代에도 그렇다. 그러나 어느 程度 南方 海洋文化의 影響을 받았는지는 未知數이다.

太平洋時代의 到來를 且置하고라도 島嶼間에 産業의 發達을 위한 相互 協力の 增進이나 文化의 交流를 통한 相互理解의 增進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 産業의 發達을 위한 相互 協力の 增進은 現在까지 主로 觀光産業의 側面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農業이나 海洋開發의 側面에서도 協力關係가 이루어질 必要가 있다고 본다. 文化交流의 側面에서는 歐美文化를 爲始한 大陸文化가 體制爲主의 機械文明論에 빠져 人間性을 喪失시키고 있으므로 自然과의 關係가 보다 密接한 島嶼의 海洋文化가 發達되어 大陸文化의 短點을 補完하고 病幣을 治癒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는 點에서 島嶼間 文化의 交流를 통하여 相互協力下에 보다 人間性이 豊富한 海洋文化를 開發하는 것이 人類文化의 將來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濟州島는 極東의 中心地에 있어서 韓·中·日의 産業間, 文化間 交流地로서 適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韓·中·日의 産業과 文化가 世界의 歷史를 主導할 可能性이 높다고 볼 때 濟州島가 그 中心的 役割을 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示唆하고자 하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다.

## II. 濟州島의 特色 : 社會經濟的 文化的 背景

### 1. 地政學的 社會經濟的 背景

#### 1) 地政學的 背景

濟州道의 位置는 東經 126°08'43"~126°24'20", 北緯 33°06'3"~34°00'00"에 있어서 木浦와의 距離 140km, 釜山까지의 距離는 297.6km, 서울까지의 距離는 441.6km, 日本의 東京과의 距離는 1,220km, 自由中國 臺北과의 距離는 1,020km, 上海와의 距離는 524.6km, 大連과의 距離는 732km, 우라지보스톡과의 距離는 1,159km, 홍콩과의 距離는 1,680km이다.<sup>1)</sup> 濟州市와 緯도가 비슷한 外國의 地域은 日本의 福岡市, 中共의 淮陰(Huaiyin), 宿懸(Suxian), 中東地方의 바그다드(Baghdad), 북아메리카의 카사블랑카(Casablanca), 美國의 로스엔젤레스(Los angels) 南部, 애틀란타(Atlanta)

1) Britannica Atals, 1969, 1970, p.81에 의한 紙上測定距離임. 靑瓦臺 觀光開發計劃團, 濟州觀光綜合開發計劃, 1973. p.12에 의하면 東京과의 距離는 1,236.2km, 臺北과의 距離는 1,023km, 홍콩과의 距離는 1,823.4km로 되어 있어서 특히 홍콩과의 距離가 疑問이다.

등이다.

面積 1,825km 海岸線 253km인 濟州道の 地形을 보면 幼年期에 속하는 火山島로서 火山源地形이 많이 保存되어 있고, 後期에 噴出한 玄武岩으로 된 多孔質의 돌이 많으며 火山灰土로 덮혀있다. 水系는 放射狀 水系를 이루고 있으나 南北 兩側 斜面에 비하여 傾斜가 緩慢하고 긴 斜面과 넓은 熔岩臺地가 發達하고 있는 東·西兩側에는 水系의 發達이 貧弱하고, 大部分이 15km 内外의 乾川을 이루는 河川은 大部分이 玄武岩이 斷崖나 暗礁로 되어 있어서 和順港을 除外하고는 天然의 良港을 찾아보기 어렵다. 東北部 및 西北部의 一部와 東南部の 一部海岸에 發達한 貝殼의 砂丘는 漸次 內陸部로 移動堆積하여 耕地와 村落을 埋没시키고 있다.

濟州道の 氣候를 보면 1986~1988年間的 平均氣溫은 濟州地域 15.1℃, 西歸浦地域 16.03℃, 最高氣溫은 34.8℃, 最低氣溫은 -4.1℃이며, 降水量은 濟州地域이 年平均 1,544.2mm, 西歸浦地域이 1,763.6mm, 蒸發量은 濟州地域이 年平均 1,223.1mm이고, 西歸浦地域이 1,252.7mm이다. 相對濕度는 年平均 71%이다. 海面氣壓은 平均 1,015.9mb이고, 日照時間은 年平均 1,908h이며, 最深積雪은 18.1cm이다. 平均 風速은 約 4.0(m/s)이고 最大風速은 26.2(m/s)이다. 風向은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北風 내지 北西風이 많고 봄에서 가을 사이에는 東風이 많다. 快晴日數는 平均 48日이고, 흐린날씨는 平均 175日이다.<sup>2)</sup>

濟州道 沿岸의 自然條件을 보면 東海와 黃海에서 南下하는 寒流가 太平洋에서 北上하는 緩流(黑潮)와 濟州道 近海에서 交叉 合流하고 있고, 海水의 表面水温이 북쪽은 12℃, 남쪽은 14℃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海底에는 多孔質의 玄武岩이 깔려 있어 海藻類의 棲息에 適合하다.

以上과 같은 自然條件들을 살펴볼 때 農業에 있어서는 畜農이 적고 田地農業이 爲主가 될 수 밖에 없었다.<sup>3)</sup> 卽 石多, 火山灰土, 農業用水의 不足 등은 田地農業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雜穀을 위주로 한 自給自足の 農業構造를 면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土地利用의 合理化나 高度化를 이루지 못하고 土壤改良이 不振하여 前近代의 生産方法을 전수하여 오다가 近來에 이르러 亞熱帶의 温暖한 氣候를 利用하여 柑橘을 위주로 한 高等蔬菜 등 高所得經濟作物로 代置 轉換하였다. 畜産을 위한 牧場用地는 約 65,695ha로 3~4年 사이에 擴張되는 傾向이 있으며, 草地造成 面積도 增加하고 있으나 젓소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飼育戶數와 頭數가 減少하고 있다. 水産業의 경우에 있어서도 좋은 自然的 條件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漁業 家口數와 水産物漁獲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觀光面을 보면 瀛州10景을 爲始하여 9個의 溪谷, 4個의 瀑布 및 沼淵, 7個의 洞窟, 10個의 奇岩, 360餘個의 寄生火山, 4個所의 郡落을 이룬 樹林, 1,700餘種의 植物, 800餘種의 動物이 있고 指定文化財로서 1個의 寶物, 2個의 史蹟, 14個의 天然紀念物이 있어 觀光資源이 豊富하다. 이에

2) 氣候에 대한 統計値는 제주도, 主要行政總覽, 1989, p.23에 의함.

3) 1988年12月31日 現在, 土地種別 現況을 보면 田이 53,774ha, 畚이 983ha, 果樹園이 18,617ha, 草地造成 1,344ha, 林野가 197,166ha로 되어 있다. 제주도, 主要行政總覽, 1989, p.125, p.130, p.153, p.201, p.125.

따라 觀光施設과 觀光客이 增加하고 있다.

## 2) 社會·經濟的 與件

1988年12月31日 現在 濟州道の 家口數는 126,748戶인데 이中 農家는 42,077戶(34%)이고 非農家는 84,671戶(66%)이다. 人口는 508,992名이며 男女의 比는 49:51이고, 이 中에 都市人口가 58%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經濟活動人口는 211,296名으로 全體人口의 43.4%에 이른다. 人口의 增加 現象을 보면 1965年 326,405名, 1970年 365,522名, 1975年 412,021名, 1980年 462,755名, 1985年 489,464名으로 나타나 있다.<sup>5)</sup> 住民登錄에 의한 道外 轉出入 狀況을 보면 1979年에 道外 轉出이 15,660名, 國外 其他 轉出이 54名인데 對하여 道外로부터의 轉入이 14,207名, 國外·其他로부터의 轉入이 692名으로 815名の 社會的 減少를 나타내고 있는데, 1979年の 出生者數는 10,695名인데 對하여 死亡者數는 2,979名이어서 7,717名の 自然的 增加를 나타내고 있으며 1980년에는 道外 轉出이 18,042名, 國外·其他 轉出이 150名인데 對하여 道外로부터의 轉入이 17,060名, 國外 其他로부터의 轉入이 670名이어서 464名の 社會的 減少를 나타내고 있으나, 同年의 出生者數는 13,355名인데 對하여 死亡者數는 3,984名으로 9,371名の 自然的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1981년에는 道外 轉出이 18,692名, 國外·其他 轉出이 141名인데 比하여 道外로부터의 轉入이 17,505名, 國外·其他로부터의 轉入이 523名으로 805名の 社會的 減少를 나타내고 있으나, 同年度 出生者數는 12,132名인데 對하여 死亡者數는 4,525名으로 7,607名の 自然的 增加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sup>6)</sup>

陸地部와의 交通手段은 카페리호가 濟州-釜山間 週6回, 濟州-木浦間 週6回, 濟州-莞島間 韓一號가 週14回 就航하는 海上交通路<sup>7)</sup>가 있고 日本長崎間 海上交通路線도 週6회나 된다. 濟州에서의 航空路線은 서울까지 1日 KAL 21便, 아시아나 11便, 釜山까지 KAL 15便, 아시아나 5便, KAL이 大邱까지 1日 12便, 光州까지 1日 5便, 여수까지 1日 1便, 晉州까지 1日 1便으로 되어 있다. 國際航空路線은 釜山경유 東京이 週3回, 釜山경유 大阪이 週4回, 釜山경유 名古屋가 週4回, 名古屋 直行이 週3回, 釜山·大阪경유 台北이 週4回, 台北直行이 週1회로 되어 있다.<sup>8)</sup>

道內 陸上交通은 1961~1966년에 第1橫斷道路가 鋪裝되었고, 1962~1970년에는 1周道路가 鋪裝되었으며, 1968~1972년에는 第2橫斷道路가 鋪裝되었고, 濟州-中文間, 濟州-表善間 中山間 産業道路의 鋪裝이 完成되어 있다.<sup>9)</sup> 1988年12月31日 現在 自動車 登錄 現況은 車種別로 보아, 乘用車가 官用 212臺, 自家用 7,052臺, 營業用 1,570臺이고, 버스가 官用 72臺, 自家用 2,331臺,

4) 濟州道, 主要行政總覽, 1989, p.26.

5) Ibid., p.27.

6)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6, p.56.

7) 東洋高速 및 韓一號 取扱事務所 提供.

8) 大韓航空 濟州支社 提供

9) 제주도, 主要行政總覽, 1989, p.231.

營業用 985臺이며, 貨物車는 官用 268臺, 自家用 10,065臺, 營業用이 737臺이다.<sup>10)</sup>

電話普及率은 100人當 22.1臺(全國 28%)이며, 電化率은 104,599戶이고 住宅普及率은 85.9%(全國 67.6%)이며, 給水率은 99.9%(全國 70%)이다.<sup>11)</sup> TV 普及率은 86.8%이다.

生活保護 對象者는 1988年12月31日 現在 8,817家口에 14,731名이며 이中 居宅保護가 3,396家口에 5,549名이고, 自活保護가 5,421家口에 9,182名에 이른다.<sup>12)</sup> 社會福祉施設을 보면 同年 現在 保育院이 5個所에 533名, 母子施設이 1個所에 141名, 養老院이 2個所에 142名에 이르고 있다.<sup>13)</sup>

1979年에 調査한 濟州道民의 意識構造中 重要한 意識만을 골라보면, 家族形態에 관한 意識은 老父母를 같이 모시는 韓國의 傳統的 家族形態가 「濟州型 家族形態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sup>14)</sup>, 風水地理說을 믿는 사람이 26%에 不過하고, 耕地內의 墳墓는 共同墓地로 移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識이 72%에 달하고 있으며,<sup>15)</sup> 結婚形態도 仲媒結婚(9%)보다 戀愛 또는 戀愛後 父母 承諾이 65%에 이르고 있다.<sup>16)</sup> 濟州道民의 地域發展에 대한 期待도 79%나 되어 높은 편이며 地域開發의 方法은 政府의 指導와 住民의 協力에 의하여 한다는 것이 56%에 이르고 있고,<sup>17)</sup>

觀光開發에 대하여는 否定的인 반응이 25%, 肯定的인 반응이 75%로 나타나 있으며, 觀光開發과 병행하여 所得增大를 위한 産業의 優先順位는 柑橘, 特用作物, 畜産, 水産 등으로 나타나 있다.<sup>18)</sup> 所得事業에 대해서는 모든 分野에 行政支援이 必要하다는 것(37%)이 더 높다.<sup>19)</sup>

1986年度 現在의 就業構造는 1次産業이 42.2%, 2次産業이 4%, 3次産業이 53.8%이고, 1988年度 現在의 道民總生産은 總 9,537億원 중 1次産業에 의한 것이 4,023億원(42.2%), 2次産業(鑛工業)에 의한 것이 380億원(4%), 3次産業에 의한 것이 5,134億원(53.8%)으로 되어 있다.<sup>20)</sup> 1987年度 現在 道民所得은 2,581弗(2,122억원, 全國 3,098弗)이다.<sup>21)</sup>

産業構造의 實態를 概觀하면, 1988年度 現在 農家가 42,077家口(34%), 耕地面積이 54,757ha(戶當 1.3ha)이고, '88年度 主要經濟作物生産(粗收益) 實績을 보면 柑橘이 415千%, 고구마가 102千%에 麥酒麥이 32千%에 油菜가 8千%으로 나타나 있고,<sup>22)</sup> 畜産分野에 있어서는 소가 35,882頭,

10) Ibid., p.196.

11) Ibid., p.42, p.40, p.242, p.245.

12) Ibid., p.97.

13) 上掲書, p.115.

14) 趙文富外, 濟州道民의 意識構造 調査研究, 濟州道, 1979, p.68.

15) 上掲書, p.19, p.28.

16) 上掲書, p.54.

17) 上掲書, p.90.

18) 上掲書, p.106, p.131.

19) 上掲書, p.196.

20) 濟州道, 主要행정총람, 1967, p.32.

21) Loc. cit.

22) 上掲書, p.128.

말이 1,835頭, 돼지가 109,113頭, 羊이 1,174頭로 되어 있다.<sup>23)</sup> 漁業家口數는 9,023戶, 漁業人口는 36,874名, 漁船이 1,965隻(11,905屯)이고 漁獲高가 42.9千% (54,602百萬)이며, 水産物 輸出이 26,028千弗로 나타나 있다.<sup>24)</sup> 1988年 現在 總觀光客數는 2,000千名인데 이 중 外國人은 158千名이며 觀光收入은 2,382여萬원이다.<sup>25)</sup> 觀光受容施設을 보면 宿泊施設이 366棟에 11,954室로 되어 있다.<sup>26)</sup>

## 2. 南方 海洋文化와 北方 大陸文化의 交叉地

### 1) 歷史的 背景

濟州道에 사람이 살기 始作한 正確한 年代는 알 수 없지만 빌레못洞窟遺跡과 天地淵 바위그늘 住居地(rock-shelter)의 發掘調査로 舊石器時代로 推定된다. 新石器時代遺物이 北村里 고두기언덕 바위그늘住居地에서 發見되었고, 그 중 삼각형 點刻무늬토기는 濟州特有의 것이다.<sup>27)</sup>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에 해당하는 無紋土器와 고인돌·磨製石器·甕棺墓·支石墓 등의 遺物·遺跡도 發掘되고 있으나 青銅遺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28)</sup>

濟州道에 關한 文獻上의 最初記錄인 <三國志>, 東夷傳과 三姓神話에 의하면 韓과의 交易, 新羅, 百濟·高句麗 三國과도 交流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98年(동성왕 20년)에 百濟의 屬國이었다가 三國統一로 新羅의 屬國이 되어 唐과 日本과도 交涉이 이루어졌다.<sup>29)</sup>

高麗의 後三國統一以後 麗廷은 耽羅王族들에게 武散階 授與를 通해 支配力을 強化시켜 1105(숙종10)년에는 地方行政區域인 耽羅郡으로 開編하였다. 1229年頃 耽羅郡을 濟州로 昇格, 처음으로 濟州라는 말이 쓰여졌다. 그후 蒙古의 直轄地였다가 1294(충렬왕 20) 高麗에 還付되면서 濟州로 고쳐졌다. 濟州道는 三別抄의 對蒙抗爭의 據點이었으며, 그 당시 時代的 狀況으로 牧馬場을 管理하던 牧胡들의 亂이 자주 일어났다.<sup>30)</sup>

朝鮮時代인 1416년에 三邑制(濟州牧, 旌義縣, 大靜縣)를 實施하였으며 倭의 侵入에 對한 城·鎭 등의 築造와 運兵整備를 하였다. 朝鮮朝를 通해 馬匹과 柑橘이 代表的 貢物이었으며 地理的 與件으로 流配·漂流者가 많았다.<sup>31)</sup>

韓末에는 三政紊亂, 支配層의 農民搾取·官弊·災害로 인한 農漁民의 反亂 등과 抗日運動으로

23) 上揭書, p.152.

24) \*Ibid., pp.158~161.

25) Ibid., p.169.

26) Ibid., p.171.

27) 吳南三外, 「濟州道—歷史的 背景」(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誌—地方篇Ⅳ」1986.) p.436.

28) 이창규, 「考古學研究와 濟州島 先史文化」(濟大學報, 1984, 第25輯), pp.121~125.

29) 吳南三外, 「濟州道—歷史的 背景」(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地誌—地方篇Ⅳ」1986) pp.437~438.

30) 上揭書, pp.438~440.

31) Ibid., pp.440~442.

서 開國以後 日本漁民의 濟州島近海浸透에 대한 島民抗據, 金錫允·高仕訓 等の 義兵運動, 朝天 獨立萬歲運動, 獨立軍 資金募金運動과 海女蜂起事件 等이다. 日帝政府는 1914年 旌義·大靜 두 郡을 廢止, 濟州郡에 合併하고 1915年 5月 郡을 島로 고쳐 島司를 두었다. 日本人들은 漁場의 獨占, 漢拏山의 표고栽培, 森林造林, 溫州蜜柑栽培 等を 通하여 모든 利權을 빼앗았고 相對的으로 島民은 日本의 勞動市場으로 떠나 光復前까지 移住民數는 10萬에 이른다.<sup>32)</sup>

解放以後 制度整備로 1946年8月1日 島를 昇格하여 道制實施를 보게 되었다.

濟州道의 歷史는 先史時代에 연결되어 있으나 많은 調查研究가 必要하다. 三國時代以後는 災害와 收奪에 對한 抗爭의 歷史였으며 産業은 農漁業을 中心으로 하였다. 特産物로는 馬, 柑橘, 표고와 解産物 等이다.<sup>33)</sup>

## 2) 北方 大陸文化的 要素와 南方 海洋文化的 要素

韓半島의 歷史는 北方 大陸文化的 影響과 南方 海洋文化的 影響을 받았다. 北方 大陸文化란 中國·蒙古 등의 文化를 말하므로 그것은 東洋文化를 意味하게 되고, 南方 海洋文化란 太平洋을 通하여 影響을 받은 文化로서, 近代化 以前의 東·西洋 文化와 近代化 以後의 西洋文化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歷史는 北方大陸文化(東洋文化)의 歷史가 主宗을 이루었고, 有史以來 濟州島는 그 影響을 주로 받아왔기 때문에 北方大陸文化的 要素에 관해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南方海洋文化的 要素만을 여기에서는 주로 다루기로 한다.

濟州道는 先史時代에 南方 海洋文化的 影響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近代化 以後에 西洋文化的 影響을 받았다. 有史以後에는 近代化에 이를 때까지 北方大陸文化的 影響을 받았다. 先史時代의 考證史料는 充分치 않지만 南方 海洋文化的 要素들을 몇 가지 들어 볼 수 있다.

첫째로 「高麗史」의 三姓神話에 볼 수 있는 것인데 玄容駿 博士에 의하면 良·高·夫 三神人이 땅에서 湧出했다는 地生說은 北方 大陸文化的 神話인 卵生說이나 降神說과는 다른 南方海洋文化 系統의 神話라고 한다.<sup>34)</sup>

둘째 東海에 漂着된 木函속에서 三處女가 나타나 良·高·夫 三神인과 婚姻을 하게 되었다는 「高麗史」의 記錄도 漂着神說로서 南方 海洋文化 系統의 神話라고 한다.<sup>35)</sup>

세째, 古來로부터 傳하여 내려오는 民俗信仰中에 來訪神說이 있다. 玄博士에 의하면 이것도 또한 南方 海洋文化 系統의 傳說이라고 한다. 來訪神說은 「영등神」이라고 불리우는 神이 바다 저편에 있는 나라에서 舊曆 2月1日에 濟州島를 來訪해서 農業과 漁業에 豐饒로움을 주고 2月15일에 바다 건너에 있는 本國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近來에 이르러서도 海村에서는 「영등神」을 받드는 巫俗이 行해지고 있다.<sup>36)</sup>

32) Ibid., pp.442~444.

33) Ibid., pp.144~446.

34) 玄容駿, 濟州島巫俗의 研究, 第一書房, 1985, p.16.

35) Ibid., p.16.

36) Ibid., p.252.

네째, 1986년에 朝天邑 北村里에서 發掘된 三角形 土器는 新石器時代의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지만 韓半島 다른 地域에서 發掘된 例가 없는 濟州島 特有의 것이라고 한다.<sup>37)</sup>

有史以後에는 주로 韓半島와 關係를 맺었기 때문에 北方 大陸文化의 影響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과의 關係에서 日本을 통하여 南方 海洋文化의 影響을 받았고, 直接 西洋文化와 接觸할 機會도 있었다.

日本の 海賊을 倭寇라고 하였는데, 이들로부터 濟州島가 侵略을 받은 것은 1323年으로부터 1556年에 이르는 동안이었는데<sup>38)</sup> 이 期間동안은 日本이 西洋文物과 接하기 始作한 期間이 된다. 日本이 西洋文物에 接하기 始作한 것은 1543年(一說에 의하면 1542年)에 漂流해 온 포르투갈인이 鐵飽(銃)를 傳한 것과 1549年 예수스회에 의한 基督教 傳道를 위하여 사비에르(Francisco Xavier)가 日本에 上陸한 것이라고 한다.<sup>39)</sup> 그러므로 初期의 倭寇의 侵略은 西洋文物의 影響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末期에 侵略을 한 倭寇는 西洋文物의 影響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에 基督教이 傳해진 것은 7~8世紀에 基督教의 一派인 景敎(nestorius派)가 들어온 것이 그 始初라고 하지만 이것은 定說이 되지 못하고, 1592년에 始作되는 壬辰倭亂때 天主教 信者였던 小西行長이 神父의 派遣을 要請함에 따라 1953年 12月 세스페데스(gregoris de Cespedes, 1551~1611)가 韓國에 온 것이 西洋神父로서는 처음이지만<sup>40)</sup>, 이 또한 韓國人에 대한 傳道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點에서 基督教 傳道の 始初라고 할 수는 없다. 韓國에서 基督教이 受容되기에 이른 것은 日本이나 明·淸과 같은 中國에 가게 된 韓國人이 傳道를 받은 것이 契機가 되어 1831년에 파리의 外邦傳敎會(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가 韓國에서의 傳敎를 決定하게 되고<sup>41)</sup> 1836년에 모방(Pierre P. Maubaunt) 神父가 西洋人 神父로서는 처음으로 入國 傳道하기에 이른 것이다.<sup>42)</sup>

天主教가 韓國에 들어오기 以前부터 濟州島에서는 南方 海洋文化(또는 西洋文化)와의 接觸을 할 機會가 있었는데, 몇 가지 史實들을 들어보기로 한다.<sup>43)</sup>

첫째, 李珪 牧使(1611~1613) 당시 琉球國世子가 州城 竹西樓下에 漂到한 事實이 있었는데, 牧使와 判官이 寶財를 탐내어 이를 殺害하고 말았다.

둘째, 李适 牧使(1616~1618) 당시 日本으로부터 담배가 들어왔다.

세째, 金瑩 牧使(1628~1629) 당시 和蘭人 朴淵(벨터브레)이 漂到했다.

네째, 李元鎭 節制師(1651~1653) 당시 和蘭人 하멜 一行 36名이 南海岸에 漂到했다. 1653年の 하멜(Hamel, Hendrik)이 日本의 나가사키(長崎)로 가던 중 一行이 濟州島에 漂流, 一年동안 濟州

37) 吳南三外, op.cit., p.436.

38)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6, p.115.

39) 加藤周一, 「日本文學史序說」下, 東京, 筑摩書房, 1980, p.6.

40) 李永獻, 「韓國基督教史」, 콘콜디아社, 1980, p.14.

41) Ibid., pp.20~21.

42) Ibid., p.40.

43) 金宗業, op.cit., p.185의 「牧民官의 主要事績表」에 의함.

島에 抑留되었다가 서울로 壓送되어 여러 兵營에 14年 동안이나 抑留되었다가 1666年 麗水 左水營에서 동료 7名과 脫出, 日本을 거쳐 1668년에 歸國, 「하멜漂流記」와 朝鮮國記를 펴냈는데, 朝鮮國記에는 朝鮮의 地理, 風俗, 産物, 政治, 軍事, 教育, 交易 등을 比較的 正確히 記錄하여, 朝鮮의 事情을 처음으로 西洋에 紹介한 것이 되었다.

다섯째, 1840年 12월에 英國 船舶 2隻이 加波島에 來泊하여 총을 쏘며 牛畜을 掠奪한 事件이 發生하였으며, 1845년에는 역시 英國船이 牛島에 나타나 一箇月 동안이나 沿岸 周圍의 水深을 測量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sup>44)</sup> 1895年 日本의 強壓에 의하여 被動的으로 이루어진 甲午更張의 余波는 濟州島에도 미쳤다.

濟州에 天主教가 들어오게 된 것은 앞서 다른 地方에서 入敎한 濟州出身 梁베드루 등이 1898年 朝鮮敎區長 무델 主教에게 宣敎師 派遣을 懇請하게 됨에 따라 1899年 5월에 佛人 神父 裴嘉祿과 韓人 神父 金元永이 入島하게 된 것이 처음이다. 敎勢 擴張 過程에서 佛人 具神父의 獸破, 敎人 敎出의 越權은 不良敎徒의 量産을 招來하게 하였고 不良敎徒의 행패는 드디어 1901年 李在守의 亂이라는 民亂을 일으키는 原因이 되게 하였다. 이 民亂에서 濟州城은 民兵에 의하여 完全히 占領되고, 殺害된 敎人の 數는 5~6百에 달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두 차례의 佛艦의 來艦, 한 차례의 日艦의 來艦 등 國際的 紛爭의 直前狀況까지 이르는 時點에서 1904年 6,300余元의 莫大한 賠償金을 佛側에 支拂하여 收拾이 되었다.<sup>45)</sup>

1906年 8월에 尹元求가 濟州郡守로 赴任하여 濟州公立普通學校의 設立을 推進, 1907年 2월에 開校하기에 이르렀고, 同年 5月 中等學校도 開校하기에 이르러서 近代的인 學校가 開設되게 되었다.

### Ⅲ. 島嶼間 協力の 歷史

#### 1. 古代의 交流

史料에 의하면 濟州島에는 新石器時代부터 原住民인 州胡人이 살고 있었는데, 大陸인 韓半島로부터 여러 種族이 移住해 왔을 뿐만 아니라, 中國의 江蘇, 蘇江, 福建, 日本의 九州, 琉球, 安南, 필리핀, 南方諸島, 말레半島 등에서 漂到 또는 移住해 와서 原住民과 同化融合하여 濟州島民을 이루었고, 濟州島民도 이들 地方에 漂流 또는 移住했을 것이라 한다.<sup>46)</sup>

44) Ibid., p.149.

45) Ibid., pp.155~166.

46) 濟州道, 濟州道誌(上) 1982, pp.29~30. 州胡人에 관한 記錄은 三國誌魏誌, 東夷傳韓條末尾에 나타남.

또한 中國 秦의 統一時代에 秦始皇이 三神山인 漢拏山에 不老草를 求하러 보냈다는 徐市過此의 傳說과 中國 漢나라 時代 및 新나라 王망時代의 貨幣와 여러가지 遺物이 濟州市 山地港에서 發見되었다.<sup>47)</sup>

韓半島와의 關係는 西紀410~420年경 高厚 등 三兄弟가 新羅에 入朝하여 關係를 맺었으며, 百濟와는 以前부터 文物交流를 하였는데, 476年(百濟文武王2年)에는 文物을 獻納하였다는 記錄과 498年 百濟東城王 20년에는 公物을 바치지 아니하였다하여 軍士를 거느려 耽羅를 치려하니 謝罪하였다는 記錄도 三國史記에 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文武王 二年條 및 東城王 20年8月條).

日本과의 關係는 三國時代以前부터 私的交易이 있어왔으나 記錄에 나타난 것으로는 661년에 王子 阿波伎가 禮物를 바친 것(日本書記 齊明天皇7年夏5月條)을 비롯하여, 664年(天智天皇3年條), 666年에도 使臣을 보내었고, 667년에는 以錦14匹, 緋24匹, 紺布24端, 桃梁布58端, 斧26, 刀子 62枚등을 貢納 交易한 記錄이 있으며, 以後 698年, 726年에도 方物 貢納, 交易이 있었음을 記錄하고 있어 政治的인 交流, 文物交易뿐만 아니라 音樂과 舞蹈이 뛰어난 耽羅人들은 藝術方面에서도 日本에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sup>48)</sup>

中國의 唐과의 關係를 例로 中國과의 關係를 살펴보기로 한다. 唐爲 東夷傳 僊羅條에는 唐高宗 龍朔初(661年) 僊羅國王 儒李都羅가 使者를 보내어 入朝하였다 하였고, 高宗 麟德年(665年)에는 僊羅의 酋長이 來朝하여 唐高宗과 함께 泰山에 갔다는 記錄이 있다. 또한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5年(665年)條에는 唐將 劉仁軌가 新羅, 百濟, 耽羅, 倭國의 使者를 同伴하여 海上을 통하여 唐에 간 것으로 記錄되어 있는데, 이 때 耽羅王은 唐帝가 泰山에서 舉行되는 天祭에 參觀했던 것이다. 또 唐나라의 巨儒 韓愈書에는 耽浮羅 등 外國商船이 南中國의 廣州에 暴走한다는 記事가 있다.<sup>49)</sup>

이와 같은 記錄들로 볼 때 耽羅人들의 海上活動이 活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海上活動을 통하여 韓半島와의 關係는 물론 日本, 中國과의 關係도 緊密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 2. 韓國의 他 島嶼와의 協力關係

濟州島는 938年(高麗太祖 21年) 高麗의 藩國이 된 以來 政治的으로 高麗에 귀속하게 되었고, 1105年(高麗肅宗10年) 郡을 設置함으로써 行政的으로 中央集權主義體制下에 들어가게 되었고 1295年(高麗 忠烈王 25年) 耽羅를 濟州라 고치게 하였다. 따라서 以後 韓半島 島嶼와의 關係는 經濟·社會·文化의 側面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高麗時代에 陸地部에서 生産되는 소금 및 그외의 生活用品과 耽羅에서 生産되는 解産物을 비롯

47) Ibid., p.26.

48) Ibid., p.49.

49) Ibid., p.50.

한 各種土産物을 交換하기 위하여 海上交通이 잦아졌는데, 海上往來에는 대개 3개소의 航路가 있었다.<sup>50)</sup>

① 羅州~耽羅間 航路는 羅州를 出發하여 務安, 大堀浦를 거쳐 靈火無, 只互島, 海南, 於蘭梁을 지나고 楸子島에 이르렀는데 7晝夜가 걸렸고,

② 耽津~耽羅間 航路는 耽津 軍營浦를 出發하여 高子, 黃伊, 靈瑟島, 三內島를 지나 楸子島에 이르렀는데, 3晝夜가 걸렸으며,

③ 海南~耽羅間 航路는 海南, 三才浦를 떠나 巨要梁 三乃島를 거쳐 楸子島에 이르렀는데 3晝夜가 걸렸다.

楸子島는 行政區域上 濟州道에 屬해 있지만 楸子島와 濟州島間 航路는 2개의 潮流가 交流하는 곳이 있고 파도가 매우 거칠어 難破하는 일이 많았으며, 가장 험난한 이 海路를 지나 到着하는 곳은 涯月浦와 朝天館이었다.

海上交通手段이 돛단배(風船)에서 汽船으로 바뀐 것은 近代化 以後의 일이며, 日帝 植民地 統治 時代에 木浦, 麗水, 釜山과 旅客船이 就航하게 되면서 海上交通手段은 安全하고 迅速하며 大型化하게 되었다. 濟州~木浦間 連絡船이 經由하는 島嶼는 楸子島와 珍島가 되었고, 濟州~釜山間 連絡船의 航路는 巨濟島 및 影島와의 關係를 形成시켰으며 最近(1979年)에 開設된 濟州~莞島間 航路에서 莞島와의 關係를 形成시켰다.

#### 1) 珍島와의 關係

珍島는 1270年(高麗元宗11年)8月 蒙古軍에 抵抗하기 위하여 일어난 襄仲孫 등 三別抄軍이 據點이었다가 李文京, 金通精 등이 麗蒙聯合軍에 抗戰하기 위하여 濟州島로 옮긴 歷史로 有名하지만, 風船時代때는 주로 楸子島와 生活必需品 交易이 이루어지다가, 近代化 以後 濟州~木浦間 航路가 開設되고, 産業化가 進展되면서 木浦와의 交易이 增大되자 珍島와의 關係는 相對的으로 疏遠한 關係가 되고 말았다. 楸子島는 行政區域上으로는 濟州道에 屬해 있지만 海上航路가 險難한 關係로 歷史的으로 濟州와의 關係보다 珍島나 木浦와의 關係를 보다 緊密히 하여왔다. 그래서 日常生活上의 經濟活動을 珍島나 木浦와의 關係에서 營爲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言語와 風習등도 이들 地方의 言語 風習과 보다 가깝다.

그러나 濟州島民은 日帝時代의 行政區域이 全羅南道에 所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二次産業의 發達, 大型旅客船의 就航등으로 珍島와의 關係보다 木浦와의 關係가 보다 緊密하게 이루어졌다. 最近의 海上旅客趨勢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51)</sup>

그런데, 以上の 旅客數는 最近 濟州道가 觀光地로서 脚光을 받게 된 結果로 觀光客數가 加算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濟州道民이 木浦에 來往하는 數보다 木浦에서 來往하는 數기 더 많

50) Ibid., p. 58.

51) 韓國長期信用銀行, 高麗大學校 經濟研究所, 地域經濟發展패턴과 濟州道の 産業開發展望, 東進印刷公司, 1984, p. 93.

<表1> 海上旅客趨勢

구 분 연 도	計	木 浦 間	釜 山 間	莞 島 間	麗水·馬山間
1962	129,999	72,559	57,440	-	-
1966	235,788	129,920	105,868	-	-
1970	275,238	167,743	107,871	-	-
1975	387,997	257,942	130,055	-	-
1978	645,845	373,645	245,051	-	-
1979	821,970	510,920	204,901	106,149	-
1980	734,972	389,386	254,831	65,241	25,514
1981	7345,233	364,241	211,050	134,808	25,134
1982	785,693	364,554	230,567	185,687	4,885

<자료> 제주도 제주도지, 통계연보(1980~83)

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最近 서울-光州등지와 航空交通이 發達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이러한 現象은 島嶼로서의 濟州島가 中央과의 交通의 發達에 따라 隣近 島嶼와의 關係가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莞島와의 關係

莞島는 海南半島間에 다리가 架設되어 陸繫島化하면서 濟州와의 사이에 1979년부터 快速정이 運航되게 되었다. 濟州와 莞島間的 距離는 56마일이나 快速정으로 걸리는 時間은 2時間밖에 안 걸린다. 莞島는 김·굴의 養殖이 盛하여 濟州의 柑橘·바나나등 農産物과 直交易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距離가 가깝기 때문에 湖南地方의 쌀을 비롯하여 糠炭등의 仲介地로도 有力하다. 그러나 아직은 大都市의 消費市場이나 二次産業의 生産地와 陸路交通이 發達하여 있기 때문에 交易이 木浦나 釜山에 比하여 그리 活潑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主로 海上交通을 통한 觀光客의 輸送路가 되고 있다. 觀光客의 輸送도 陸上交通의 相對的 不便때문에 全國的 規模의 輸送路 役割을 木浦에 빼앗긴 채 地域的 規模의 役割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表1參照).

### 3) 影島와의 關係

釜山앞바다에 있는 面積約 12km의 섬이나 1934년에 跳開式 교량이 架設되면서 釜山市의 한 區가 되어 버려 섬으로서의 役割보다 都市로서의 役割을 다하고 있다.

濟州島民은 風力船으로 海上活動을 하여왔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지만, 釜山鎮 郊外의 섬인 影島가 連絡據點이 되었을 可能性이 많다. 日帝下 動力船時代에는 日本을 來往하기 위한 據點으로 既爲 因緣이 있는 影島가 利用되었을 것으로 본다.

現在 釜山에는 濟州道出身이 20萬가량 居住하고 있는데, 그 中 影島에만 40%나 되는 8만가량

이 居住하고 있다고 한다.<sup>52)</sup> 이는 影島區 全人口의 半이 넘는 數字이다. 影島를 生活의 根據地로 하는 이들은 濟州와의 交易에 있어서도 重要한 役割을 하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日本과 의 仲介貿易을 周旋하는 中間役割을 할뿐만 아니라 쌀, 工產品, 建築資材등을 釜山으로부터 輸入하고, 柑橋, 바나나 등 農産物과 전복, 소라, 活魚등 水産物을 濟州에서 釜山으로 輸出하는데 있어서도 直·間接的으로 많은 役割을 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60%나 되는 濟州道出身이 影島外의 釜山에 居住하며, 카페리등 快速정이 釜山間에 每日 運航되고, 航空便이 每日 20便이나 釜山間에 運航되고 있어서, 影島의 役割이 弱화되는 만큼 濟州島와 影島의 關係는 疎外되고 있다. 結局 濟州島의 一次産業과 觀光을 둘러싼 三次産業의 交通의 發達을 同伴하면서 大都市와 直接 連結을 갖게 함으로써 隣近 島嶼와의 關係를 疏遠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地方自治에 의한 均衡있는 地域間 發展의 必要性을 節減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日本 島嶼와의 協力關係

#### 1) 日本 島嶼와의 關係

近代化以前의 日本 島嶼와의 關係는 漂流 漂到 關係가 主가 된다. 많은 史例中에서 몇가지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漂流의 史例를 본다.

① 貞一등 21인이 東南方의 먼 섬에 漂着하였다가, 7年만에 脫出하여 日本 那沙府에서 琉球人과 接觸 그들의 人情과 風俗을 알고 歸還한 것은 1029年(高麗 顯宗 20年) 7月이었다.<sup>53)</sup>

② 1457年(朝鮮 世祖3年) 韓金光, 金新등 濟州人이 琉球國에 漂流했다가 琉球國王이 使者인 日本僧 道安이 오는 便에 送還했고, 1479年(成宗10年) 金非衣, 姜茂, 李正등이 琉球에 漂流했다가 琉球國 使臣 上官人 新時羅등을 따라 歸還했다.<sup>54)</sup>

③ 1536年(中宗 31年) 濟州 漁夫 金公 등 14人이 日本 一岐島에 漂流했다가 逃亡해 왔고, 이해 日本 古東島 太守의 使者가 濟州 漂流人 11人을 데리고 왔다.<sup>55)</sup>

④ 1539年(中宗34年) 柑子를 進上하러 가던 姜衍泰 등 4名이 日本 5島부근 羅島에 漂流했다가 島主 原純定의 도움으로 朝天館에 돌아왔다.<sup>56)</sup>

⑤ 1665年(朝鮮顯宗6年) 濟州軍官 金元祥이 嵯峨島에 漂着하게 되어 五島로 移送되었다가 長崎를 거쳐 對馬島로 보내졌는데, 糧食과 옷을 주고, 對馬島主가 日人 平成辰을 差送하여 東萊로 돌려 보낸 일이 있다.<sup>57)</sup>

52) 李斗萬, 在釜 濟州道民會長 電話 interview.

53) 濟州道, 濟州道誌(上), op.cit., p.59.

54) Ibid., p.168. 金非衣의 漂流記에서는 允伊島, 勃乃伊島, 伊是麻島, 脫羅麻島, 伊羅波島, 悖羅彌古島 등 여러섬에 10余日씩 지낸 記錄이 나온다.

55) Loc.cit.

56) Loc.cit.

57) Ibid., p.269.

다음으로 漂到의 史例를 보기로 한다.

① 1530年(中宗25年) 琉球國人 7人이 航海途中 颶風을 만나 9日만에 漂到하였는데 官員이 불쌍하게 여겨 飲食과 술을 주어 救護하고 漢陽으로 보냈다가 倭人을 따라 돌아가게 했다.<sup>58)</sup>

② 1611年(光海君 3年) 琉球國 王子가 日本으로 가다가 바람을 만나 濟州島 北岸에 漂到했는데, 濟州牧使 李箕寶, 濟州判官 文希賢 등이 財貨를 탐내어 王子를 죽이고 배를 불살랐는데, 後에 司憲府에서 停刑하여 流配에 處하였다.<sup>59)</sup>

③ 1783年(正祖7年) 日本의 平戶島人이 大靜縣 鳥水浦에 漂到한 일이 있었고, 1790年(正祖14年)에는 琉球國 那霸府人이 貴日浦에 漂到한 일이 있었다. 平戶島人은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면 노래를 부르며 기도한다고 하였고, 那霸府人은 하나의 상투에 쌍비녀를 꽂았었고 船內에는 論語, 中庸, 小學, 教童子訓, 三國誌, 百重曆 등 많은 書籍이 있었는데, 濟州牧使 李喆模가 王에게 馳聞하고 王命에 의하여 水路로 돌려 보내었다.<sup>60)</sup>

## 2) 日本과의 關係

近代에 와서 日本과의 關係는 日本 島嶼와의 關係라기보다는 日本의 都市와의 關係가 主宗을 이루고 있다. 古代와 中世에 있어서는 琉球, 對馬島와의 關係가 漂流, 漂到에서도 發生했고, 海上活動을 통한 交易도 多少 있었던 듯 하나 近代化以後에는 그것이 事實上 不可能하게 되었다. 그 理由는 크게 두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 그 中 하나는 政治的 理由인데, 封建制를 무너뜨린 強力한 中央集權主義體制와 이러한 政治體制下의 植民地 統治體制下에서 地方分權이나 地方自治가 實施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經濟的 理由라고 할 수 있는데, 産業化 過程에서 農村의 人口가 能動的인든 被動的인든 工場地帶인 都市로 集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濟州島의 경우도 그 例外는 아니었다. 濟州道出身으로 日本에 居住하는 僑民의 數는 約 68萬7,000名이나 되는데, 主要居住地域은 東京, 大阪, 名古屋, 神戶, 京都 등 大都市이다.<sup>61)</sup> 이들이 渡日하게 된 動機는 徵用, 留學, 親·姻戚의 招請, 密航, 結婚, 4·3사건, 6·25사변으로 因한 避身 등 多樣하나<sup>62)</sup> 그 어느 경우이든 勞動은 絶對的인 生計手段이 되었을 것이다. 勞動을 위해서는 島嶼나 農村보다도 二次産業이 發達한 都市가 生計를 위한 生活의 根據地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職業은 1989年度 濟州新聞社가 標本調査한 바에 의하면 自營商工人이 38%, 生産·販賣·技術職이 21.1%인데 比하여 農·畜·水·林産職은 1%에 不過하고, 專門·行政·事務職도 11%나 되었다.<sup>63)</sup> 이들은 72%나 日本에서의 評判을 「매우 좋다」거나 「좋다」고 보고 있으며,<sup>64)</sup> 그만큼 自負心과 矜持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58) Ibid., p.169.

59) Ibid., pp.169~170.

60) Ibid., pp.269~270.

61) 濟州新聞, 1989.6.20, 6面.

62) Loc.cit.

63) Loc.cit.

64) Ibid., 7面.

日本에 居住하는 濟州道僑民들은 金銀표목을 보내는 등 濟州道の 農業發展에 寄與한 바도 컸지만, 最近에는 호텔등에도 投資하여 觀光開發에도 參與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은 出身마을에다 마을會館이나 福祉會館을 짓고, 學校의 環境改善과 獎學事業에 多數가 參與하고 있는 것이다. 濟州新聞社가 調査한 標本調査에 의하면 投資를 繼續하고 있다는 僑民이 45名으로 15%나 되며, 投資를 計劃하고 있는 僑民이 30名으로 10%나 되고, 資金餘裕가 있으면 投資하겠다는 僑民이 198名으로 64%나 되었다고 한다.<sup>65)</sup> 故鄉인 濟州道를 訪問하는 僑民도 相當數에 이르러 2~3년에 1回以上은 祖上墓의 省墓次(49%) 또는 親知相逢次(42%) 濟州道를 來往한다는 것이다.<sup>66)</sup>

最近에 이르러 日本의 高賃金事情에 따라 短期間の 單純勞動을 위하여 渡日하는 濟州道の 靑壯年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僑民까지 包含한 日本人 觀光客들이 濟州道가 觀光地로서 脚光을 받게 되는데다 円高 원低라는 換率事情도 있어서 濟州道에 觀光次 來往하는 일이 많게 되었다. 觀光을 便利하게 하는 것은 交通便인데, 濟州와 日本間의 航空便은 釜山 經由 東京이 週3回이며, 釜山, 經由大阪이 週4回, 釜山經由 名古屋가 週4回이고, 名古屋 直行이 週3回이며,<sup>67)</sup> 濟州와 長崎間에 週6回의 快速船이 就航하고 있다. 主要外國人と 比較한<sup>68)</sup> 1982년까지의 日本人 觀光客數는 다음 表와 같다.

〈表2〉 外國人觀光客數와 外貨收入

(단위 : 名, 經常價格)

區分 年度別	國 籍 別							外貨收入 1,000\$	1 人 當 (千圓)
	計	僑 胞	美 國	英 國	日 本	獨 逸	其 他		
1967	3,117	1,522	1,514	5	62	1	13	-	-
1970	6,493	2,550	1,348	23	1,271	-	49	-	-
1973	20,220	4,996	3,494	7	11,216	21	486	-	-
1975	27,997	5,798	4,028	48	16,246	8	1,869	-	-
1976	20,264	2,849	1,478	160	14,938	107	732	101	75
1977	33,294	6,583	3,720	1,442	16,099	1,222	4,228	244	110
1978	39,256	14,430	6,811	1,677	10,681	1,716	3,941	973	120
1979	31,500	8,823	6,387	1,157	9,546	700	4,887	911	140
1980	20,548	9,843	3,288	73	6,319	54	971	499	160
1981	41,825	14,474	6,825	55	19,774	116	581	1,195	200
1982	44,503	15,113	3,963	5	25,109	5	308	1,778	-

〈자료〉 제주도 제주도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65) Loc. cit.

66) Ibid., 6面.

65) 濟州道, 主要行政總覽, 1989, p.199.

68) 韓國長期信用銀行, 高麗大學校 經濟研究所, 前掲書, p.80.

1986년부터 1988년까지 日本人이 濟州道에 入·出國한 數는 다음 表와 같다.

<表3> 外國人 出入國人數

國別 入出國 年度		日 本	台 灣	홍 콩	싱가폴	미 국	영 국	서 독	프랑스	外國人 合 計
86	入國	55,820	762	1,253	42	80	25	5	3	58,480
	出國	52,493	184	1,211	13	75	23	8	38	54,741
87	入國	57,790	6,370	819	19	493	25	8	7	66,141
	出國	54,479	2,894	701	11	368	16	20	10	58,910
88	入國	58,256	6,538	209	1	98	18	20	2	65,294
	出國	54,147	2,998	216	22	83	19	10	9	57,635

資料：法務部出入國管理事務所

以上の 表에서 볼 때 日本人이 濟州道에 入國한 人員은 全體外國人の 入國者數에 比해 86年度가 95%, '87年度가 87%, 88年度가 89%를 차지하고 있다. 濟州道는 80年 11月 15日에 無査證地域으로 定하여 VISA가 없이 入道하게 하였는데, 最近의 年度別 無査證 入道現況은 '86년에 47,421

<表4> 外國人 國籍別 來道現況

區 分	'75	'80	'85	'87	'88
計	27,997	20,548	73,676	152,389	157,804
僑 胞	5,798	9,843	16,320	25,434	28,080
日 本	16,246	6,319	42,946	84,874	88,442
美 國	4,028	3,288	6,971	11,863	10,294
中 國	-	327	2,084	18,553	17,085
英 國	48	73	587	487	3,543
西 獨	8	54	523	1,033	1,684
홍 콩	-	-	-	4,798	3,619
其 他	1,869	644	4,245	5,347	5,057

자료：계주도, 主要行政總覽 1989, p.169.

名, '87년에 46,476名, '88년에 46,610名이다.<sup>69)</sup>

濟州道以外の地域에 入國後 濟州道에 來道했거나, 濟州道에 入國來道한 數를 合친 主要國籍別 來道 現況은 위 表4와 같다.<sup>70)</sup>

위 表에서 볼 때에도 全體 外國人中 日本人의 來道하는 比率이 '85年 58%, '87年 56%, '88年 56%를 차지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日本人의 많은 來往에도 不拘하고 在日 濟州道 僑民에 대한 日本人의 民族差別, 法的 地位의 不保障 등으로 日本人에 대한 濟州道民이 感情은 一般的으로 씩 좋은 便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4. 中國 島嶼와의 協力關係

中國大陸과의 關係에 관한 歷史的 記錄은 많지만 台灣이나 海南島(HAINANDAO)와의 關係에 관한 近代化以前的 歷史的 記錄은 그리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漂流·漂到에 관한 것이다. 1796年(英祖20年) 濟州人 李邦翼이 中國 澎湖島에 漂到하였는데 台灣을 거쳐 廈門, 福建, 浙江, 江南, 山東, 燕京을 지나 돌아왔다.<sup>71)</sup> 이런 事例에 관해서는 여기에서는 言及을 省略하고, 近代化 以後의 關係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殖民地 統治를 하는 日本 軍國主義 政策은 韓半島를 大陸 侵略의 基地로 삼기 위하여 湖南 穀倉地帶의 門戶인 群山港과 木浦港을 開發하여 中國의 上海 台灣等地로 軍糧米를 輸送케 했고, 慕瑟浦에 軍用飛行場을 建設하여 台灣과의 連絡을 取하면서 上海, 大連, 우라지보스톡을 겨냥하는 前哨基地로 하였다. 濟州島民들 中에 活動的인 事業家들은 이러한 交通 連絡網을 통하여 主로 濟州島의 解産物을 가지고 直·間接的으로 台灣의 市場을 輸入하였다. 金泰景과 같은 사람은 台灣에서 土建業을 했는데, 이러한 사람을 因緣으로 台灣을 往來한 濟州島民들이 있었다.<sup>72)</sup>

二次大戰이 끝난 後, 中國大陸이 共產化되자 蔣介石政府를 따라 大陸에서 台灣으로 移住한 濟州道 出身들도 있으나, 蔣介石政府와 李承晚政府는 같은 反共路線을 取하여 緊密한 關係에서 中央政府次元의 協力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4·3事件과 6·25事變의 後遺症으로 活動能力이 喪失되어 台灣과의 直交易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年代부터 韓國의 經濟가 發展되면서 濟州道の 觀光開發이 推進되어 天惠의 觀光與件을 世界에 자랑하게 되었으며, 台灣도 經濟가 發展되어 外貨可動能力이 남아돌게 되어, 濟州道民이 台灣을 旅行하는 것 以上으로 台灣人인 中華民國國民이 濟州島를 來往하게 되었다. 最近에 이르러 台北과의 關係에서 航空路線이 開設됨으로써 來往하는 人員은 急增하게 되었는데, 釜山과 大阪을 經由하는 航空便이 週4회이며, 直行便도 週1회나 된다. 台灣에서 來道한 觀光客은 1980년에

69) 濟州道, 主要行政總覽, op.cit., p.169.

70) Loc.cit.

71) 濟州道, 濟州道誌(상) op.cit., p.271.

72) 金泰俊 interview 證言.

327名, 1985년에 2,084名이던 것이 1987년에는急増하여 18,553名, 1988년에는 17,085名으로 美國人 觀光客數를 凌駕하게 되었다(表4參照). 直接 濟州道에 入·出國한 數도 1986년에 762名, 184名이던 것이 1987년에는急増하여 6,370名과 2,804名이 되었고, 1988년에는 6,538名과 2,988名으로急増하였다(表3參照).

### 5. 東南亞와의 協力關係

先史時代에는 濟州島에는 南方系統인 말레시아나, 安南, 필리핀 등지에서 到來하여 原住民과 同化하여 濟州島民을 構成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近世에 와서 1611年 安南 商賈가 南京人 및 琉球國王子와 함께 漂到한 記錄이 있다.<sup>73)</sup> 1687年 濟州人 高尚永이 安南에 漂流했다가 歸還했다.<sup>74)</sup> 1688年(肅宗 14) 金泰璜이 安南에 漂流했다가 돌아왔는데, 安南國 公文과 約與米 6百包를 싣고 왔다.<sup>75)</sup> 徵兵으로 參戰한 濟州島民이 上海, 香港,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시아 등지를 지나면서 戰鬪에서 大部分 죽고 살아 돌아온 者는 그리 많지 않다. 解放後 1960年代까지는 經濟的 事情으로 因하여 相互間에 往來할 機會가 없었다.

1970年代부터 經濟的 事情이 나아지자 香港, 필리핀, 싱가포르, 泰國 등지를 旅行할 機會가 많아졌고, 最近에 와서 香港, 싱가포르, 泰國 등지에서 濟州道에 來道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1986年度부터 1988년까지 東南亞地域에서 濟州道에 入·出國한 人數를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表5〉 外國人 出入國 現況

國別 入出國 年度		홍콩	태국	말레시아	필리핀	인도 네시아	싱가폴	인도	사우디	기타
		86	入國 出國	1,253 1,211	18 20	14 12	15 15	12 10	42 13	3 1
87	入國 出國	819 701	43 11	19 14	8 7	7 2	19 11	5 3	2 2	419 371
88	入國 出國	209 216	4 4	8 1	1 2	5 3	1 22	4 8	0 0	82 81

資料 : 法務部 出入國管理事務所 \* 其他는 香港I.D., 이란, 파키스탄, 중국, 이스라엘 등 국가임.

73) 濟州道, 濟州道誌(상) op.cit., p.170.

74) Ibid., p.267.

75) Loc.cit.

특히 홍콩에서 直·間接적으로 來道한 人員數는 1987년에 4,798名이고, 1988년에는 3,619名이 나 된다(表4參照). 1989년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居住하는 韓國僑民 辛敎煥氏가 夫人名義 安德溪谷地區 4,400餘坪의 땅에 인도네시아 民俗 工藝品, 民俗춤, 動植物 등을 展示 販賣하는 民俗博物館을 建立하겠다고 하여 注目を 끌고 있다.<sup>76)</sup>

1989년 6월 濟州道の 李君普知事와 인도네시아의 발리주 知事 Ida Bagus Qka間에 觀光分野에 서의 相互 協力에 관한 姊妹結緣 체결 共同 決定書를 發表한 바 있다. 이 姊妹結緣의 主要目的은 양 邑 住民間에 相互 理解, 友誼 및 親善을 增進시키고, 觀光情報 資料의 交換과 活潑한 觀光交流의 促進을 통하여 兩 地域의 傳統民俗文化 및 動植物 交換에 관한 情報등과 관련, 利害關係가 있는 諸般問題에 관하여 協力關係를 追求하는데 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協力關係가 注目되며, 兩 側은 위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具體的이고도 詳細한 內容을 實踐해 나갈 것을 合意했다.

## 6. 歐美와의 關係

近世에 이르러 西勢東漸의 時流를 따라 西洋船舶들이 濟州島 近海에 자주 나타났는데 그 主要 史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628年(仁祖6年) 和蘭人 월데부리(後에 우리나라에 歸化하여 이름을 朴淵이라 함)가 漂到하였는데, 本國에 있을 때는 日本의 琉球와 安南등지에 來往하면서 貿易을 했었다.<sup>77)</sup>

② 1653年(孝宗4年) 和蘭人 하멜(Handrick Harmel) 一行 36名이 加波島에 漂到하였는데, 서울로 押送되어 14年 동안이나 抑留되었다가 1666年 麗水 左水營에서 동료 7名과 脱出, 日本 長崎를 거쳐 1668年에 歸國, 「하멜漂流記」와 「朝鮮國記」를 펴냈다. 이는 朝鮮의 事情을 맨 처음으로 西洋에 紹介한 것이 되며, 이 記錄속에서 濟州島를 켈팸트(Cuelpant)로 記錄된 것은 加波島에 漂到했기 때문이다.<sup>78)</sup>

③ 1670年(顯宗11年) 英國船 샤만(Sharman)號가 牛島에 上陸하여 海岸과 陸地를 測量하였다.<sup>79)</sup>

④ 1801年(純祖元年) 大靜縣 唐浦에 船籍을 알 수 없는 船舶이 佛郎機(폴투갈, 스페인)사람들 5名을 上陸시키고 갔는데, 北京을 경유 滯留 9年만에 歸國하였다.<sup>80)</sup>

⑤ 1840年(憲宗6年) 英國船 2隻이 加波島에 들이닥쳐 총을 쏘면서 上陸 濟州島의 牛畜을 掠奪해 간 일이 있었고, 1845年 英國船이 濟州島 沿岸의 島嶼와 海岸을 測量한 일이 있었다.<sup>81)</sup>

⑥ 1880年代 前半부터 朝鮮 朝廷은 天主教의 宣敎活動을 默認하여 왔었는데, 1877年 뮈텔(Mutel)

76) 漢學日報, 1989.12.5. (6面)

77) 濟州道, 濟州道誌(上) op.cit., pp.264~265.

78) Ibid., p.265.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들, 1986. p.185.

79) Ibid., p.224.

80) Ibid., p.272.

81) Ibid., p.230.

이 朝鮮政府當局과 敎民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天主教가 公認되게 되었다.<sup>82)</sup> 이 때를 前後하여 濟州島와 天主教徒들의 橫暴가 深하게 되었으나, 地方官衙가 이를 團束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1901年(光武5年) 李在守亂(天主教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때 佛蘭西 神父 具瑪瑟의 救援要請을 받아 二隻의 佛艦이 來道하게 되면서, 그 動靜을 살피기 위하여 日艦 濟遠號와 함께, 政府軍도 別途로 派遣되면서 宮內府顧問官인 美國人 山島(W.Sando)가 來道하였으며, 佛蘭西와의 關係에서 賠償問題가 論難된 바 있었다.<sup>83)</sup>

二次大戰後 2年11個月동안 美軍政統治下에 있었고, 1950년에 發生한 6·25事變은 聯合軍이 參戰하게 되면서 歐美諸國과의 關係가 形成되게 되었으며, 濟州道도 直·間接으로 그 影響下에 놓이게 되었고, 많은 濟州道民이 美國으로 移住하게 되었다. 1970年代부터 經濟가 發展되고 濟州道의 觀光開發이 이루어지면서 相互間에 많은 往來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美國, 英國, 西獨等 國籍別 來道現況은 表4와 같거니와, 直接 濟州道에 入·出國한 歐美 諸國人的 最近現況은 다음 表와 같다.

<表6> 歐·美國人的 濟州道 入·出國 最近 現況

國別 入出國 年度		美 國	카나다	英 國	西 獨	佛蘭西	네델란드	스웨덴	스위스	伊太利
86	入國	80	37	25	5	3	2	1	5	0
	出國	75	40	23	8	38	4	5	7	0
87	入國	493	34	25	8	7	1	3	10	0
	出國	368	17	16	20	10	1	3	4	0
88	入國	98	7	18	20	2	0	2	3	2
	出國	83	5	19	10	9	2	1	2	2

資料：法務部 出入國 管理事務所

以上の 表로 볼 때 '87年度를 絶頂으로 '88年度에 減少 趨勢에 있는 것은 直接 入國하지 않고, 올림픽에 參觀했다가 國內便으로 來道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86年 11월에 濟州道와 하와이間에 姉妹結緣이 이루어졌다. 濟州道の 蔣炳九 知事와 하

82) 姜萬吉,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p.289.

83) 濟州道, 濟州道誌(상) op.cit., pp.344~350.

와이州 아리오시(George R. Ariyoohi)知事 사이에 宣言된 姉妹結緣宣言文에 의하면, 結緣의 主要 目標을 兩島의 住民들 相互間에 理解, 友誼, 親善의 增進, 經濟 및 社會分野에서의 知識과 經驗의 交流 增進, 觀光事業의 交流增進, 其他 相互 利害關係가 있는 諸般問題에 관하여 協助的인 解決을 追求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앞서 濟州道知事が 하와이州知事を 訪問했고 하와이州의 議員, 州政府 顧問, 하와이 大學 教授들을 濟州道에 招請, 濟州大學校와 共同으로 相互協力에 관한 第1回 學術세미나를 開催한 바 있고, 1987년에는 濟州道の 行政官, 事業家, 言論界 및 學界가 하와이를 訪問함과 同時에 相互協力에 관한 第二回 共同學術세미나를 開催했으며, 1988년에는 政界, 業界, 學界를 招請하여 第3回 學術세미나를 濟州道에서 開催했다. 1987년부터는 官界와 學界에서 해마다 1人씩 하와이에 派遣하여 地域開發등에 관한 研究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學術交流는 全的으로 하와이 居住 韓國 僑民의 協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不過하며, 아직은 其他의 協力關係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學術交流만 해도 아직은 州政府 次元에서 必要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7. 其他 島嶼와의 關係

濠洲등 大洋州와의 關係는 1950年代 初 6·25事變때 濠洲軍이 UN軍으로 參戰하면서 韓國과의 關係가 이뤄졌으나, 濟州道와의 關係는 1970年代 以後에 形成되었을 뿐, 具體的인 協力關係는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70年代에 濟州道の 畜産振興을 위해서 濠洲로부터 肥肉牛를 導入하여 繁殖시켜 나가고 있지만 아직 좋은 成果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特用作物 栽培를 위하여 뉴질랜드로부터 키우이를 移植, 栽培에는 成功을 거두고 있으나, 需要가 그리 많지 않아 繁殖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濟州道の 畜産振興을 위한 研究를 위하여 繼續的인 關係가 이루어지고 있다.<sup>84)</sup>

最近에 濟州道에 入國하고 出國한 狀況을 보면, 1986년에 濠洲人 33名이 入國하여 29名이 出國하였고, 뉴질랜드人 6名이 入國하여 6名이 出國하였으며, 1987년에는 濠洲人 11名이 入國하여 14名이 出國하였고, 뉴질랜드人은 1名이 入國하여 1名이 出國한데 不過하며, 1988년에는 濠洲人 10名이 入國하여 11名이 出國하였고, 뉴질랜드人은 1名이 入國한데 不過하다.

最近에 濟州道出身 白亨洙가 濠洲에 進出하여 大規模의 農業開發에 着手한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84) 뉴-질랜드의 酪農現況과 國際協力方案에 관해서는 鄭昌朝外, 濟州道酪農發展을 위한 調查研究(用役報告書), 1989, pp.55 '65. 參照.

## IV. 島嶼間 協力の 實態

### 1. 序 說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역과 지역간의 協力は 相互間에 각 方面의 交流를 통해서 상호간의 利益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濟州島가 국내 및 國外の 섬들과 협력을 도모하는 이유도 그러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濟州島가 外國의 섬들과 협력을 追求하는 이유는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巨視的 立場에서 아시아·태평양시대가 열림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입장이다.

이와같은 입장은 濟州島가 他國과의 섬들과 協力關係를 추구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明示的으로 분명히 밝혀졌다기 보다는 점차 더욱 더 협력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분명해지고 있다.

두번째는 일반적인 地域間的 協力の 목적대로 각 方面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濟州道가 外國의 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美國의 하와이섬과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이며 기타 몇몇 섬과 관계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 2. 濟州道와 하와이의 協力關係

#### 1) 兩地域의 現況

濟州道는 하와이가 國際的 觀光地로서 여러가지 면에서 제주도과 類似한 까닭으로 姊妹結緣을 맺음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濟州道와 하와이의 基本現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와이 인구는 濟州道の 약 배이상이며 면적은 약 십배이고 觀光客의 수에 있어서도 약 5배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特産物에 있어서도 하와이는 종래의 農業中心에서 食品加工業으로의 변천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는 濟州道가 농업중심에서 탈피하여 관광 및 기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類似하다.

그리고 濟州道와 하와이의 地域特性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濟州道는 ① 天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소박한 民俗文化를 간직하고 있고 ② 濟州道 綜合開發計劃推進 등 모든 계획과 시책은 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광지로 가꾸고 있다. ③ 감귤주축의 農業은 바나나, 파인애플 양다래 등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있고 아울러 축산 진흥시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모든 産業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구 분	제 주 도	하 와 이 주
인 구	489,000명	1,039,000명
면 적	1,825㎢	16,706㎢
관광객현황	1,323,000명('85)	5,546,000명
숙박시설	호텔, 여관 218동	호텔, 여관 209동
교육시설	전문대이상 4개교 초·중·고교 178개교	전문대이상 13개교 초·중·고교 374개교
특산물	감귤, 맥류, 유채, 고구마 특용작물(바나나, 양다래등)	설탕, 파인애플 식품가공업

한편, 하와이는 ①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좋은 기후조건으로 天惠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② 그리고 대륙과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항공·해운동 仲介地로서 관광수입이 4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③ 열대성 파인애플을 주축으로 한 농업육성 및 이의 가공식품가공업이 발달하여 製造業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④ 그리고 해양개발로 새로운 산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兩地域은 관광지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륙과 대륙 또는 대륙과 해양의 중개지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농업주축의 經濟에서 가공업, 축산 또는 海洋開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고 있는 등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 2) 두 地域間 協力の 經過

이에따라 濟州道는 하와이섬(美國의 洲)과의 ① 상호방문등을 통한 우의 및 친선을 도모하고 ② 觀光經濟등 地域社會 개발분야의 쌍방 지식 및 경험교류를 증진하고 ③ 상호이해증진을 통한 발전적 측면에서 共同協력을 추구할 기본계획을 세웠다.<sup>85)</sup>

85) 제주도 하와이주 자매결연계획 보도자료(안)

이 계획에 따라 1985년 11월19일에 장병구 제주도지사가 G.R.Ariyoshi 하와이 州知事를 예방하여 姊妹結緣 등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한편 하와이섬에서는 1986년 4월에 J.Jimshon 하원의원이 양지역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발의하여 上·下 兩議院이 결의 채택하여 濟州道 및 하와이 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韓國政府의 내무부에서는 1986년 8월 8일에 양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濟州道는 1986년 8월에 하와이주에 姊妹結緣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하고 姊妹結緣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였다.

한편 하와이는 1986년 10월31일에 韓國의 내무부를 통하여 하와이주지사가 직접 濟州道를 방문하여 姊妹結緣을 갖자고 통보하였다.

이리하여 1986년 11월23일에 하와이주 知事一行이 濟州道를 방문하여 11월25일에 제주도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sup>86)</sup>

참고로 자매결연 선언문을 보기로 한다.

#### 姊妹結緣 宣言文

大韓民國 濟州道知事와 美合衆國 하와이州知事는 지역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도·주 자매결연의 성립을 이에 확인한다.

本 結緣의 주요목표는 濟州 및 하와이주민간의 이해, 우의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雙方의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증진시키며 활발한 觀光事業의 교류증진을 통하여 兩地域의 전통문화와 가치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증진과 기타 상호관계가 있는 제반문제에 관하여 협조적인 해결을 추구하는데 있다.

양 지역의 주민을 각각 대표하여 濟州道知事와 하와이주지사는 그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이익에 관한 조화로운 활동을 통하여 本道·州 姊妹結緣을 遵守하도록 촉구한다.<sup>87)</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자매결연의 목적은 觀光經濟의 交流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이 자매결연식장에서 장병구 제주도지사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太平洋時代의 開幕이라는 시대적인 조류에 비취볼 때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은 관심을 끈다.<sup>88)</sup>

#### 3) 相互交流

濟州道와 하와이는 濟州道の 재정지원을 받아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이 주최한 “濟州道와 하와이간의 島嶼地域 開發協力關係”를 주제로 한 제1회 國際學術세미나를 1986년 6월30일과 7월1일에 걸쳐 개최하였다.

그리고 同年 6월22일에는 하와이大學 副總長 J.C.Agsalud 등 5명이 제주대학교를 방문하여 兩

86) Ibid.

87) Ibid.

88) 제주신문, 1986.11.15.

大學間の 협력관계를 협의하였다.

1986년 9월에는 하와이 아시아 태평양교류 연구원 초청으로 중등영어교사 2명이 1개월간 연수를 했으며 동년 10월에는 濟州大學校 教授 1명이 하와이 대학 초청으로 1년간 연수하였다.

1987년 7월13일에서 16일까지 동 제2차 國際學術會議가 같은 主題를 가지고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1987년 10월30일에는 하와이주지사가 濟州道를 방문하여 姊妹結緣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1988년 1월3일에는 濟州道 공무원인 사무관 1명이 하와이大學校에 6개월간 연수 파견되었다.

그리고 1988년 10월11일에서 13일까지 동 國際學術세미나가 같은 주제하에 “太平洋時代に 있어서의 제주-하와이 觀光開發協力方案의 摸索”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濟州道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1989년 6월13일에는 濟州道知事が 하와이주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재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兩地域間の 도서지역개발협력이라는 세미나도 태평양시대에 있어서의 觀光開發協力方案으로 심화되어가고 있어 太平洋時代に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학자 교사등의 교류도 많아지고 있음을 본다.

#### 4) 今後 相互交流의 內容

행정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新正, 크리스마스 및 상대도의 기념일 및 慶吊日에 서신교환을 확대하고 행정자료의 교환으로서는 도정소개, 관광소개자료, 통계연보, 기타자료를 교환할 것이다.

또한 親善訪問을 확대하여 學界, 관광업계, 각 직능단체등의 상호교환방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大學, 社會團體間の 개별적인 자매결연을 유도할 것이고 觀光客의 유치 및 각종 산업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또한 地域開發分野, 관광, 해양개발, 농업에 대한 技術交流를 증진할 것이며 그밖에 문화, 교육, 직업, 기술, 교역등의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할 것이다.<sup>89)</sup>

#### 5) 期待效果

위와 같은 자매결연 및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하와이주의 관광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모순점 및 좋은 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濟州道綜合開發推進에 반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觀光施設이나 전통민속문화 보존상황 또는 관광객 유치정책의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濟州道는 하와이와 협력 관계를 통하여 美洲地域에 까지도 제주도민이 진출하고 그 존재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姊妹結緣은 문화, 교육, 직업, 기술, 교역의 相互利益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觀光資源의 실태를 홍보함으로써 외국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할 수 있고 濟州道地域發展

89) 제주도·하와이주자매결연계획 보도자료(안)

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國際觀光地化에 따른 濟州島民의 관광객 수용태세 등 선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sup>90)</sup>

### 3. 濟州道와 발리섬과의 協力關係

#### 1) 兩地域의 現況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은 Java섬의 동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印度洋海上에 떠 있는 섬이다.

섬의 크기는 제주도보다 약3갑절 정도 넓은 5천6백㎢이며 인구는 2백80만명으로 濟州道民보다 6배정도 많다.

이 곳의 特産物은 나무조각을 정교하게 새겨 만든 목각품, 은제품, BATIK 양식으로 만들어진 직물등 주로 수공업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민의 65%가 農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가 많이 내려 일년동안 쌀을 삼모작으로 생산하고 있다.

세계적인 觀光休養地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年間 30만~40만명 정도로서 濟州道보다도 약 3배 정도가 적다.

韓國觀光客들은 1988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발리를 찾고 있으며 韓國人이 경영하는 순한국식 식당도 있다. 관광숙박시설은 6백50실규모의 BALI Beach Hotel을 비롯해 여러 군데에 지어져 있으나 대부분 Denpasar의 kuta지역에 몰려 있다.

발리섬과 濟州道는 특히 역사, 문화, 개발정도등에서 類似點을 많이 갖고 있다.

발리섬이 관광지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부터의 일이나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걸쳐 영화 “남태평양”에 의해 인구에 회자하게 되었으며 觀光産業의 역사가 濟州道와 유사하다.

그리고 Indonesia의 신화, 구비전설, 신앙이 Polynesia Micronesia Melanesia의 세 지역과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 한편 이슬람文化圈에 들어있는데 유독 발리섬만은 힌두文化의 傳統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점 濟州道가 方言, 고유민속 등 그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점과 비슷하다.

또한 과거에 元나라의 침공을 받은 면도 濟州道와 유사하며 전설속의 초능력적 영웅 「카나구」는 태어날때 거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는 제주도의 역사적 실제 인물인 「김통정장군」의 전설과 비슷한 발상을 갖고 있다.

Indonesia의 音樂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발리 음악은 濟州道の 무가나 노동요에 비해보면 역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역사, 문화, 민속등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兩地域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시킴은 물론 협조여하에 따라서는 濟州道와 발리섬을 두개의 핵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광코스의 開發등

90) Ibid.

관광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 2) 두 地域間 協力の 經過

한편 濟州道와 발리섬의 자매결연은 1988년 11월 13일에서 14일에 걸친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 太平洋 4국 순방(Malaysia, Australia, Indonesia, Brunei)을 통해서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순방에서 韓國은 21세기 아시아 太平洋時代의 主役의 하나로서 보다 크고 능동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새로이 제기협의를된 과제를 기존의 협력사업추진등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킴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91)</sup>

이 순방 기간중에 盧泰愚 大統領이 Indonesia측의 요청으로 양 섬의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濟州道는 4단계로 推進計劃을 세우고 1989년초까지 결연도시의 현황등과 결연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에 有關中央部處를 통해 결연을 재의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1989년 2월 22일에 韓國의 내무부가 양섬의 姊妹結緣을 정식으로 승인하였으며 곧이어 1989년 6월 16일에 자매결연조인식이 발리주 댐파사 주정부 청사 주지사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군보 濟州道知事와 이타 바구스 오카 발리 주지사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는 이날 調印式에서 양측은 姊妹結緣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관광정보자료교환·동식물교환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참고로 兩側이 체결한 공동결정서를 보기로 한다.

“大韓民國 濟州道知事와 Indonesia 발리 주지사는 관광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兩地域의 상호이익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의 본 결정서를 선언한다.

이 자매결연의 主要目標은 濟州와 발리 주민간의 이해 우의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觀光情報資料의 교환과 활발한 관광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양 지역의 傳統民俗文化 및 동식물 교환에 관한 정보등과 관련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며 양 지역간 상호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諸般 問題에 관하여 關係를 추구하는데 있다.

兩側은 이상 결정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본 자매결연에 의한 상세한 내용을 더욱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濟州道와 하와이의 경우와 같이 觀光에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음은 濟州道가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濟州道와 발리는 交流推進計劃을 타결했으며 그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는 海外觀光弘報에 따른 협조체제의 구축, 건축물 고도제한 및 건축양식보급, 국제항공로선 증편, 개설, 민속예술공연교류, 공예기술교류, 식물교류등이 있다.

따라서 濟州道와 발리섬과의 자매결연은 韓國側으로서는 國家的 次元에서 세계유수의 자원보

91) 대통령 아·태 4국순방 후속조치추진계획(안), 1988.12. 후속조치추진 특별대책반

유국인 Indonesia와 상호국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政治外交의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제주-하와이-발리를 잇는 立體的 관광협력체제가 이루어져 제주도의 관광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sup>92)</sup>

#### 4. 濟州道와 他島嶼와의 協力可能性

濟州道가 앞으로 더욱 더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日本의 Okinawa 中國의 Hainan, 필리핀의 Ilocos, 폴투갈의 Ajores등이며 일부 학자들은 뉴우질랜드와의 협력도 권고하고 있다.

이미 濟州道の 이군보 도지사는 Indonesia의 발리섬과의 姊妹結緣式에 참석하기 직전인 1989년 6월12일부터 3일간 하와이주를 친선방문하여 John Waihee 주지사등과 여러가지 協力方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太平洋地域에 있는 관광섬간의 연계개발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단계 조치로 國際세미나등을 통해 濟州와 하와이 이외에도 일본의 오키나와와 中國의 Hainan섬과의 연계협력방안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하와이는 濟州道와 姊妹結緣을 맺기 이전인 1985년 이전에 하와이와 오키나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오키나와에서도 제주도와 하와이간의 연례 國際學術세미나를 오키나와까지 참가하여 개최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하와이는 이미 濟州道와 오키나와 이외에도 폴투갈의 Ajores, 中國의 Hainan 필리핀의 Ilocos섬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위 세 섬과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두 섬을 포함한 다섯 섬의 代表會議가 1990년 5월 중에 하와이의 Honolulu에 모여서 “經濟發展”에 대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섬에서 3명의 대표가 참가하게 될 이 會議에서는 1) 전반적인 經濟發展狀態 2) 이 경제 발전에서의 觀光産業의 위치와 전망 3) 觀光産業發展에 수반한 토지사용과 환경보전계획 등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다시 하와이를 포함한 여섯섬의 전반적인 협조에 대해 그룹토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中國의 Hainan섬은 최근에 중국 당국이 省으로 승격시키고 主要觀光地로 개발할 것을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와 의 지리적 관계로 보아서 앞으로 일본-濟州道-하이난도 또는 하와이-제주도-하이난도 간을 연계개발시켜 국제관광 및 交通中心地로 추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93)</sup>

따라서 앞으로 濟州道는 既存의 하와이와 발리섬과의 姊妹結緣을 중심으로 하여 太平洋圈의 각 섬들과의 연계적인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92) 유철희, 제주-발리간 자매결연의의와 교류전망. 제주도, 통권 제86호, 1989, pp.27~28.

93) 대중공접근과 제주개발의 미래, 김동성, 제주개발 무엇인가? 제주대학교 p.24, 1988.

한편 뉴질랜드는 國土面積 26만8천1백5km로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축산물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1988년말 현재의 축산물매출의 수출액은 全體輸出額의 50.86%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畜産業은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으로 초지를 위주로 한 방목형축산이 정착되어 있는데 이는 生産費가 절약되어 生産性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뉴질랜드의 이러한 초지위주의 낙농기술과 濟州道의 낙농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양축업과 종마생산기술도입을 위한 國際協力體系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sup>94)</sup>

## V. 結 論—島嶼間 協力の 意味와 濟州島의 未來像

### 1. 島嶼間 協力の 意味

島嶼는 그 立地的 與件에 따라 近代化以前에는 航海中の 風浪으로부터 人類의 生命을 救出하였고, 近代化以後 帝國主義 時代에는 侵略의 基地나 防衛의 根據地로 利用되었는데, 二次大戰以後에는 産業發展과 文化傳播의 交流地로 活用되고 있다. 産業發展을 위해서는 그 與件에 따라 다르겠지만, 大體로 農·畜·水産 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海洋開發의 基地로도 利用되며, 觀光産業의 振興을 위한 地域으로 開發되기도 하는데, 交通과 通信이 發達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生産과 流通의 國際化는 陸地와 島嶼間의 關係는 물론 島嶼와 島嶼間의 關係를 緊密하게 連結시켜 나가게 하고 있다.

또한 島嶼는 陸地와는 다른 獨特한 文化를 形成하여 溫存하는 傾向이 많기 때문에 陸地로부터의 影響을 받기도 하지만 陸地에 影響을 미치기도 한다. 西歐에서 獨佛이 專制君主에 의하여 統一王國을 이루었지만 國民이 活力을 잃고 있는 동안 英國이 民主主義를 發展시키고 産業革命을 일으킨 것이나, 中國의 淸朝가 封建의 君主制의 舊弊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日本의 近代化가 앞서나갈 수 있었던 것은 英國이나 日本이 섬나라로서의 長點을 가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만 섬을 섬나라에 比喩할 수는 없지만 獨特한 島嶼文化의 長點을 잘 살린다면 大陸文化가 衰退하는 傾向을 막을 수도 있으며, 相互補完關係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뉴욕, 시카고, LA등 大都市의 退廢風潮와 社會不安에 比하여 하와이의 호놀룰루 社會가 健全하고 安定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와이가 섬이라는 점과 東洋文化와의 交流가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와이의 文化는 本土에 分明히 影響을 미칠 것이다.

島嶼는 各己 立地的 與件과 賦存資源에 따라 産業이 發達되고, 獨特한 文化를 形成하여 地域間 또는 國際間에 그 役割 機能을 다할 것이므로, 島嶼間 協力の 意味는 두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94) 1989.11.1. 제주신문과 한라일보.

첫째는 經濟交流이다. 經濟交流에 있어서는 生産을 위한 情報과 技術의 交換과 商品의 流通을 들 수 있을 것이다. 一次産業의 경우 氣候와 風土가 類似한 島嶼間에는 作物의 品種 및 栽培에 관한 情報과 技術이 交換될 것이고, 氣候와 風土가 다른 島嶼間에는 風光과 文化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各己 獨特한 觀光資源을 商品化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交通便과 宿泊施設의 相互開設 및 連鎖化와 같은 것이 必要하다.

둘째는 文化交流이다. 文化交流에 있어서는 各己 가진 民族性이나 傳統文化의 理解를 위한 交流와 學術調査團의 相互派遣 交流 및 學術세미나의 共同開催등을 통하여 相互 理解를 增進시키고, 相互間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0世紀 後半에 이르러 日本·韓國·台灣·홍콩·싱가폴·東南亞·인도네시아·濠洲·뉴질랜드 등 아시아의 太平洋 沿岸國家들은 南北美大陸과 活潑히 交流할뿐만 아니라 이들 國家들 사이에도 相互 交流하고 있어서 太平洋時代를 實證的으로 展開해 나가고 있는듯 하다. 이러한 時代에 極東의 中心地에 位置한 濟州島가 하와이, 발리, 台灣, 뉴질랜드 등 太平洋沿岸의 여러 섬과 交流하고 協力하는 것은 濟州島의 經濟 및 文化發展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 太平洋 地域의 經濟發展과 文化發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며, 나아가서는 人類文化의 發展을 위해서도 크게 寄與하는 契機가 될 것이다.

## 2. 濟州島의 未來像

제주도가 국내·외의 섬들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섬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도모에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협력의 목적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아시아·太平洋時代의 개막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 지역의 섬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보다 巨視的이고 능동적인 목표의 추구라고 할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太平洋時代의 주역의 하나로서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日本으로서도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sup>95)</sup>

한편 제주도가 지금까지 외국의 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美國의 하와이섬과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이다.

제주도와 하와이는 1986년에 姊妹結緣을 맺었으며 발리섬과는 1989년에 姊妹結緣을 맺었다.

그리고 하와이는 1985년 이전에 오끼나와와 姊妹結緣을 맺었으며 그 밖에도 포르투갈의 Ajores, 중국위 Hainan, 필리핀의 Ilocos와 姊妹結緣을 맺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제주도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여러 섬들과의 姊妹結緣관계에 연결되어 이러한 섬들과의 연계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95) 윤정석, 태평양시대의 도래와 제주의 위상, 제주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새마을연구소, 1988, p.16.

그리고 제주도는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뉴질랜드와의 협력관계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주도와 여러 섬들과의 협력관계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발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주도나 다른 섬들과의 협력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濟州島와 하와이 間에는 觀光分野뿐만 아니라 農業·水産·海洋分野에 있어서 經濟交流과 더불어 文化交流가 必要하다. 經濟交流에 있어서는 先進島嶼의 노하우(Knowhow)를 研究하고 그 長短點을 比較 分析하여 後進島嶼의 開發에 試行錯誤가 없도록 適用시켜 開發을 促進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文化交流에 있어서는 傳統文化를 比較研究하여 長短點을 가려 住民의 福祉增進에도 貢獻해야 할 것이다. 濟州島는 農·畜·水産·觀光分野에서 賦存資源이 豊富하여 經濟開發의 可能性이 많을 뿐만 아니라, 言語·民俗·傳說 등 傳統文化가 깊고 獨特하여<sup>96)</sup> 物質文明의 退廢性에 그리 쉽게 휩쓸리지 않을 것이므로 健全한 文化를 育成 發展시켜 나갈 수 있다는 點에서 文化交流의 側面에서 島嶼間 協力에 寄與하는 點이 많을 것이다.

濟州島와 뉴질랜드사이에는 土壤條件과 氣候條件이 類似하여<sup>97)</sup> 畜産·酪農뿐만 아니라 農業分野에서도 技術交流을 위한 協力이 必要할 것임은 앞서 말한바와 같거니와 觀光 및 文化分野에서도 交流와 協力이 期待된다.

太平洋時代의 到來를 展望하면서 太平洋沿岸에 있는 Asia의 諸 島嶼는 經濟交流과 文化交流를 通하여 協력을 增進시키고, 太平洋沿岸의 모든 島嶼와 相互 補完關係를 形成 強化하여 發展을 이룩함으로써 太平洋沿岸의 大陸國家에 影響을 미치도록 하여 太平洋時代를 主導해 나가는데 濟州島가 그 一翼을 擔當하게 될 것이 期待된다.

96) 김항원, 濟州島 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1990年, pp.65~77, pp.115~123, pp.164'174.

97) 鄭昌朝外, op.cit., p.64.

## Summary

# Cooperation Among Small Islands

— The Case of Cheju Island —

*Cho Moon-boo, Cheong Jin-o*

Before modernization, islands offered shelter for people on voyages from high and rough seas. During the time of Imperialism, they were used as bases for invasion or defense.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y serve as places for exchanging industrial development. Generally speaking, the areas of agriculture, livestock industry, and marine product industry may be developed in islands. Also, islands are utilized as bases for ocean development and they may be developed as places for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products,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s forming mor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slands, as well as between islands and continents.

Islands have tendencies to form and preserve unique cultures, distinguished from those of continents. Thus, they are influenced by the cultures of continents, but they exercise influence on them as well.

In the late 20 century, many countries in the Pacific region, such as Japan, Korea, Taiwan, Hong Kong, Singapore, Indonesia, Australia and New Zealand, maintain active transaction not only with the American Continent but also among themselves, thus together unfolding the Pacific Era. At this point, Cheju, which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Far East, transacts and cooperates with other islands in the Pacific such as Hawaii, Bali, Taiwan, and New Zealand. This will be beneficial not only for their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but also for that of the whole Pacific region. From a broader perspective, it will also be a chanc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development of the entire human race.

Cheju pursues inter-island cooperation with other islands,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to facilitate mutual interests, which is a general purpose of cooperation.

The fact that Cheju is actively seeking inter-island cooperation with the islands in the Pacific, with the opening of the Asia-Pacific Era, reflects that it has a broad view and is actively pursuing its aim of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Pacific Era.

Expecting the coming of the Pacific Era, it is suspected that the islands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promote cooperation through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 They will also establish and strengthen mutually complementary roles and will have influence upon the nations on the continents along the Pacific. Then, it will be possible for these island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Pacific Era and it is expected that Cheju will be taking a part in it.